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번역사전

- 한/체코어 번역사전에 대하여 -

Tomas Horak

(체코, 카렐대학교)

horaktom@yahoo.com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학습자의 동기와 열성 외에 여러가지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자격 있는 교사, 충분한 학습 시간 및 사용 기회, 적절한 교재 등의 요소 말고도 실용적인 사전도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수업시간은 몰라도 집에서의 자습은 사전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가능할지라도 효율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환경, 그리고 학습 목적에 따라 교수법과 교재가 달라져야 하듯이 사전도 마땅히 몇가지 다른 종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몇가지 중에서 특히 해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번역사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해외에서의 한국어 학습 특수성

이미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¹ 한국에서의 한국어 학습과 해외에서의 한국어 학습을 방법론상 구별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학습 목적 면에서 현지 학습과 해외 학습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현지 학습자가 주로 의사소통능력을 희망하는 반면 해외 학습자들은 순수한 의사소통능력보다는 통/번역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후자는 전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해외에서 한국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려

¹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9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 참조.

면 의사소통 능력만으로 불충분하다. 한국에서 언어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의사소통에 지장이 별로 없는데도 말하고 읽는 내용을 모국어로 옮겨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하고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모국과 거의 병행해서 새로운 언어 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현지 학습자가 많은 언어 형식의 의미를 대충 알게 되고 상황 위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만 모국어 체계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 해외 학습자 같은 경우에 대개 단어나 구의 의미 내용, 또는 문법 형태소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응되는 모국어 표현을 찾아야 한다. 물론 학습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극히 제한된 학습시간을 감안해서라도 좋은 번역 사전을 사용하는 것이 한국어와 모국어를 연결짓는 데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국어사전 및 외국어 번역사전 이용의 문제점과 모국어 번역사전의 필요

한국어는 7천만 명 이상의 사용 인구를 감안하면 세계적으로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공식 표준어 정리, 맞춤법 개정 및 표준어 규정, 사전 편찬 등 여러가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서는 선진 문화 언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적어도 사전 편찬 방면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가 이루어졌다. 국립국어원 편 "표준 국어 대사전"을 비롯하여 한글학회에서 편찬된 "우리말 큰 사전", 민중서림, 두산 동아, 금성출판사 등 민간 출판사가 펴낸 크고 작은 국어사전들이 그 수가 수십 종에 이른다. 그리고 대부분 콘텐츠가 Daum, Naver, Yahoo, Empass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올려 있어서 쉽게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국어학적인 차원에서 한국어를 정리하는 것이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

한 것은 아니다. 외국인 학습자가 목적 대상이 아니니 만큼 국어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다. 어휘의 불충분한 설명, 적합하지 않은 예문, 불필요한 의미분화로 복잡해진 뜻풀이, 그리고 한국어에 유난히 많은 동음이의어가 있는 특성도 외국인 학습자를 혼란하게 한다.

물론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국어 사전도 없지 않다. 2006년에 처음 발행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 Learner's Dictionary of Korean (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 기획)이 사용 빈도에 입각한 어휘 선정부터 비교적 쉬운 뜻풀이와 예문, 활용 정보, 쓰는 방법 등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초급 학습자가 한국어 사전만 가지고 의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또 말하기와 쓰기 같은 능동적인 언어기능 분야에서, 즉 텍스트를 생성할 때, 국어 사전이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어쩔 수 없이 번역 사전을 찾는다.

모국어로 된 번역 사전이 없는 소수 언어 학습자(체코 학습자를 포함)도 번역 사전을 선호하는데 외국어를 통해 번역을 시도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거나 아예 본문 해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두개 사전(즉 모국어/중간언어 - 중간언어/한국어)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거나 글을 쓸 때 더욱 어렵다. 학습자가 처하는 문제를 몇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휘의 다의성을 들 수가 있다. 한국어 어휘 특히 한자어 중에 다의어 및 동음이의어가 많은데 주요 중간언어인 영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어를 중간언어로 사용하는 학습자가 한국어 단어를 하나만 가지고 많게는 열개 이상의 대응어를 얻는다. 그 많은 대응어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초보자로서는 힘겨운 일이다. 가끔씩 엉뚱한 데로 빗나갈 수도 있다. 심한 경우를 예로 들자면 "식물"이란 말은 영어 "plant"으로 번역되는데 "plant"는 다시 체코어 "továrna"(공장이라는 뜻)로 번

역이 가능하다. 또는 "대부분"을 영어의 "major"을 거쳐서 체코어 "major"(소령)로 번역하는 학생이 있었다. 어떨 때는 한자어의 복합적인 내부 구조도 번역하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주"는 영어로 "drinking"이 되고 다시 체코어로 번역하면 "piti" (마시는 것)가 되는데 원래 "술을 마시는 것"에서 "술"이라는 의미 요소가 빠진 것이다. "경미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가볍고 아주 적어서 대수롭지 아니하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영어로 "slight, triffling, insignificant"과 같이 번역되고 체코 학습자도 역시 대응어 하나만을 찾는 것이다. 즉 본능적으로 일 대 일 대응을 선호하는데 거기에다 영어를 매개로 하면 의미 내용의 일정한 부분이 상실된다.

어휘의 문법적 특성 불일치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낙관적"과 같이 접미사 "-적"으로 끝나는 말은 격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분명히 명사적 성격을 띠는데 체코어로 관형사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 "오늘"이나 "어제"와 같은 시간 표현도 명사지만 체코어 대응표현이 주로 부사로 나오고 명사적 표현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

"앞", "뒤"도 역시 명사로 기재되지만² 실제 사용은 다양하다. 완전 명사로 쓰일 때는 체코어에서 대응되는 적합한 표현이 없어서 (있다고 해도 고작 "앞 부분", "앞 장소"일 뿐이다) 대부분 경우에 전치사로 번역해야 된다.

예: 앞이 잘 보이지 않다 -

(...) není dobře vidět ("잘 보이지 않다")

앞을 보다 - dívat se dopředu ("앞으로 보도")

이곳은 서울역 앞입니다 - tady jsme před soulským hl.

² "앞">{명} -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뒤">{명} - 향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되는 쪽이나 곳 (표준국어대사전; 사물의 앞의 반대쪽 부분 (연세한국어사전))

nádražím (서울역 앞에 있습니다)

명사를 수식 할 때는 관형사 "přední"로 번역되고 (앞길, 앞날, 앞바퀴, 앞 유리/앞유리, 앞자리), 명사 뒤에 오면 전치사 "před"으로 번역되며 (교문 앞에서, 집 앞을) 그리고 동사접두사로 나오면 "앞"의미 요소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어휘로 번역된다 (앞당기다; 앞장서다; 앞서가다, 앞서다; 앞세우다; 앞다투다 등).

다른 예로는 "서다", "앉다", "눕다"와 같은 동사를 그대로 번역하면 동작 동사가 되지 않고 "서 있다", "앉아 있다", "누어 있다" 의미의 상태 유지를 나타내는 동사가 된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문법적 의미만을 가진 언어 형식, 특히 복합형식을 번역하는 즉 대응 표현을 찾는 일이다. 예를 들면 조사 "만"에 "jenom, pouze"라는 단어가 대응하고 어미 "-기는요" 체코어 "jaképak/jakýpak/jakápak"으로, "-거든요"가 - "totiž"으로, "-지만"은 접속사 "ale"로 번역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언급이 명시하는 것처럼 의사소통 중심의 직접 교수법에서는 국어 학습 사전만 가지고 공부할 수는 있지만 통/번역 기술을 중시하는 해외 한국어 교육에서는 번역 사전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른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한국어/모국어 사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체코어 번역사전 사업

한/체코 사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것이 계기가 돼서 몇 년 전에 번역 사전 편찬에 착수했다. 사실 반대쪽 체/한 사전이 이미 발간 됐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사람이 체코어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이고 체코어 화자가 한국어 발화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다. 목적어인 한국어에서 여러 대응 표현을 제시해 주는데도 의미 차이나 사용법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시도하는 사전은 체코어 학습자를 위한 한/체코 사전이다. 그래서 표제어 구성부터 부수적 정보 제시, 예문 등 모든 것은 언어 기술을 목적으로 한 것보다 실용성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즉 체코어 화자가 한국어 발화를 파악, 이해하고 또는 한국어 표현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한다. 아래에 편찬 중인 사전의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해 본다.

1. 사전 크기

본래는 사전 편찬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 크기(수록될 어휘수)부터 결정해야 되지만 필자가 성장형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사전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표제어 구성에 "사전크기"라는 항이 있는데 소사전, 중사전이나 대사전을 표시하면 나중에 해당 데이터를 쉽게 추출할 수 있다.

2. 뜻풀이

뜻풀이는 대응어가 같을 경우에 지나친 의미분화를 피한다. 대신 구조적(언어 체계 속에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발화속에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문을 제시한다. 주로 표준 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 사전, 국립국어원 말뭉치, 용례집을 이용한다 (www.korean.go.kr - 정보마당 참조). 종종 인터넷 검색기도 살아있는 실례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여러가지 대응가능한 표현을 제시하기 위해 예문도 번역한다. 그리고 정확한 (일대일 식) 번역보다는 기능적인 번역을 시도한다. 즉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화용론적, 상황적인 요소를 고려해 본다. 기초적인 표현부터 체계적 의미만 고수하면 어색하거나 아예 통하지 않은 번역이 될 수 있다.

3. 표제어 구성
한/체 사전의 표제어 구성을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1. 표제어 (동음이의어 번호)
 2. 직접 다른 표제어로 이동 - 주로 동사 기본활용형(가까워, 지어 등), 의성의태어 대표형과 연결
 3. 어원 - 원문 즉 한자, 영어, 독일어 등으로 표기
 4. 체코어로 발음 표기 - 실제 발음을 잘 표시할 수 있는 체코 표기법을 사용
 5. 한국어 로마자 표기 - 주로 지명과 같은 고유 명사 표기에 사용
 6. 품사 - 주로 형태, 통사론적 기준에 다른 분류; 표준문법보다 약간 많음; 소위 형성소와 동사 기본형 포함
 7. 형태특성 - 활용형, 화석화된 형태, 분포상의 제한 등
 8. 단어장 - 예: 몸, 도구, 동물, 식물, 기계..., 분류 사전 참조 - 어휘 학습용
 9. 사전 크기 - 소, 중, 대사전 - 데이터 추출용 의미1
 10. 문체론적 특질 - 구어체, 속어, 문어체...
 11. 분야 - 전문 용어 - 건축, 민속, 철학, 의학, 수학 등
 12. 동사의 격틀 - 한글로 제시, 체코어로 번역
 13. 의미해석 - 대응되는 체코 표현
 14. 예문 - 연어, 문장 - 한글로 표시, 체코어로 번역
 15. 동의어, 반의어, 유사어 (예. 비슷한 형태의 의성어, 의태어)
- 의미2
-
16. 관용구, 속담 (체코어로 번역)
17. 부표제어일 경우 주표제어 참조 - 파생되거나 합성된 단

어 주로 부표제어로 처리, 표제어에 묻치는 게 아니라 가나다순으로 나열

만든 사람, 날짜

수정한 사람, 날짜

교정한 사람, 날짜

완성여부

위에 제시된 표제어 구성은 되도록 상세하게 짚는데 실제 편찬 작업을 할 때 보다 간단한 형식을 사용한다 (MS Access편집기 참조).

품사적 범주 목록

{명} - 명사

{명(관)} - 주로 관형어(명사 수식) 기능을 하는 명사

{명(부)} - 주로 부사어 기능을 하는 명사

{의} - 의존명사

{대} - 대명사

{수} - 수사

{동} - 동사

{형} - 형용사

{관} - 관형사

{부} - 부사

{감} - 감탄사

{조} - 조사 (격조사, 보조사, 연결조사 포함)

{어미} - 어미 (연결 어미, 종결 어미, 선어말 어미 포함)

{조동} - 보조 동사

{조형} - 보조 형용사

{접두} - 접두사

{접미} - 접미사

{동기} - 동사 기본형 (불규칙 동사의 활용형; 예: "가깝다"의 "가까워", "짓다"의 "지어" 등)

부록

1. 전자 데이터베이스 편집기

a) 주 메뉴 화면

Slovník 페이지 1 / 2

Menu

- Jazyk: Korejsky
- Hledat
- Vytvořit nové
- Císelníky
- Změnit password

Hnízdové heslo - "가하다"

Tato volba
změní text hnízdového hesla například v případě překlepu

Základní údaje

Znakový zápis (etymologie) : 가하다
Výslovnost : káhada
Oficiální korejská romanizace (2000) :
Slovní druh : 동
Číslo homonyma : 1
Morfosyntaktické zvláštnosti : 가하다, 가하다(가
하다)
Velikost slovníku : Malý slovník

Významy

Význam : přidat, dodat; přispět

Stylistická
rovina :
Oborové
členění :
Pracovní
oborová
skupina :

Valence : 1이 2에 3을 가하다 - někdo přidává
něco někam
Příklad : 원금에 이자를 가하다 - přidat k
jistině (k základu) úroky
Příklad : 10점을 가하다 - přidat 10 bodů
Příklad : 쇠에 열을 가하다 - dodat železu
teplotu, zahřát železo
Příklad : 속도를 가하다 - přidat rychlost,
zrychlit
Příklad : 한 몸도 집안에 가한 적이 없다 -
Nikdy do domácnosti nepřispěl ani
hallem.

https://motor.feld.cvut.cz/slovník/slovník.php?id=d8fa&nm=edit&heslo_id=432 2009-01-01

